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물놀이 안전대책

어린이 물놀이는 가정, 유아교육기관, 수영장,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 자연환경 그대로를 이용해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감독이 가능한 정해진 공간에서 놀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이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식이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든 그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물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물놀이 안전지도 수칙]

#### ☞ 물놀이를 하기 전의 안전수칙 ☜

· 눈병이나 귓병이 난 어린이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눈병은 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귓병이 있을 때는 귓속에 물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된다. 피부병이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도 상처가 나을 때까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물놀이를 하지 말고 특히, 계곡이나 강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튜브를 이용할 경우 바람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기를 꼭 채운다. 공 모양의 튜브는 물 속에서 미끄러져 놓치면 위험하므로 도넛 모양으로 몸에 끼울 수 있는 튜브가 안전하다.

· 물놀이 직전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음

식을 먹고 30분정도 휴식을 취한 후 물놀이를 하도록 한다.

#### ☞ 물놀이 안전수칙 ☜

· 교사나 부모, 안전요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놀이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햇볕이 가장 강한 낮 12시~3시 사이를 피해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에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충분히 쉬고 햇볕을 쬐 때는 피부 화상을 막기 위해 셔츠를 입고 물놀이를 한다.

· 물이 어린이의 배꼽 정도까지 차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찬물에 다이빙하거나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손과 발→팔, 다리→몸통(심장)의 순으로 물을 문힌 후 물 속에 들어간다.

· 물놀이 도중 발에 쥐가 날 때는 엄지발가락을 앞쪽으로 힘껏 잡아 당겨 근육이 풀릴 때까지 마사지해 준다.

· 물놀이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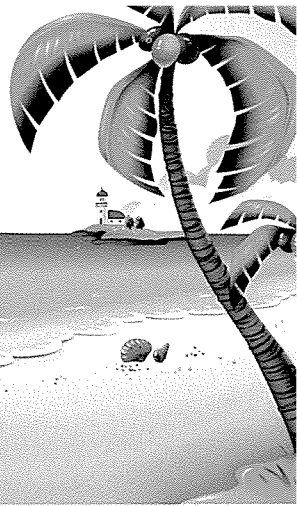
· 물놀이를 할 때 친구를 물 속으로 밀거나 얼굴에 물 뿌리는 장난은 위험하다.

·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손을 높이 쳐들어 좌우로 크게 흔든다.

· 화장실에 갈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어른과 함께 간다.

#### ☞ 유아가 물에 빠졌을 때 ☜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 구하는 것보다 튜



브나 막대 등을 주어 그것을 잡고 유아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뒤쪽에서 접근하여 한 팔로 유아의 머리와 팔을 껴안고 다른 팔로 헤엄쳐 나온다. 물에서 구하였을 때 유아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마른 옷가지나 담요로 빨리 몸을 감싸서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마사지를 준다.

· 의식을 잃었을 경우는 호흡을 하는지 살펴보고 호흡이 멈췄거나 미약한 경우 바로 기도를 열어주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한다.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눕혀 놓고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담요 등으로 덮어준다. 이 때에는 젖은 옷을 벗기려하지 말고, 호흡의식 상태를 지켜보며, 인공호흡을 할 준비태세를 갖춘다. 인공호흡 후에는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가거나 구급차를 불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 어른을 부른다.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안전]

수영장 바닥은 미끄러우므로 뛰지 않고 걸어서 다닌다.

· 물 속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다치므로 심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물 속에서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으면 물이 오염되어 눈병이나 피부병이 생기므로 주의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몸을 씻도록 한다.

· 수영 모자와 물안경을 쓴다. 수영모를 쓰면 물에 머리카락이 빠져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안경을 쓰면 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는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있기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부모가 알고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

1. 어린아이가 있으면 간이플과 목욕통, 번기통, 양동이, 수족관에서 의 역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한다.
2. 물 근처에 아이를 혼자 두거나 형제끼리 남겨 두고 떠나지 않는다.
3. 최소한 3살 이상 어린이에게 수영을 가르친다.
4. 도너츠 모양의 튜브를 사용한다. 공 모양의 튜브는 미끄러워서 물에 빠질 위험이 높다.
5.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수영을 한다.
6. 수영도중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나오게 한다.
7. 공복이나 음식을 먹은 직후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8. 물속에서 수영할 때 눈을 뜨는 훈련을 시킨다.
9. 수영을 할 때 물의 깊이는 배꼽높이 정도가 적당하다.
10. 바닷가에서는 슬리퍼가 아닌 신발을 신게 한다. 물속에 돌, 유리조각, 막대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진해소방서)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안전]

해변에는 다른 물놀이 장소에 비해 모래가 많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지만 모래를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 눈에 모래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모래 속에 날카로운 물질(조개 껍데기, 뾰족한 돌, 깨진 유리병 등)이 묻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한다. 쉽게 벗겨지는 슬리퍼보다는 장급 장치가 있어 잘 벗겨지지 않는 신발이 좋다. 파도가 높은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계곡에서의 물놀이 안전]

계곡이나 강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 맑고 깨끗한지 살펴본다 (오염된 물에서 물놀이하면 눈병, 피부병 등이 생긴).

· 물살이 센 곳에서는 균형을 잃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쉬우므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만약 신발이나 물건이 떠내려가면 절대로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친다.

·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